



편집인 칼럼

논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며...

■ 최운홍/ 안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원래 벼농사 짓는 논을 뜻하는 '답(畓)'이라는 한자는 한문의 종주국인 중국은 물론 한자문화권인 일본에도 없는 한자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중국 요동지방 옛 만주에 '답동(畓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곳까지 진출하여 기후조건이 맞지 않는 이곳에 수리시설을 하고 벼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한 우리 한국인은 그 후에도 러시아 땅 연해주 한카호수 주변 450ha에 벼농사를 짓는데 성공함으로써 도전과 가능성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1889-1975)는 "만약 인류가 시베리아를 농토화 하는데 성공한다면 인류의 양식걱정은 끝이요.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의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땅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지만, 논은 처음부터 '있는 논'이 아닙니다. 논이 될 수 밖에 없는 땅을 사람들이 논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겨레는 이같은 논에서 생산되는 쌀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이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만큼 논은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맡아 왔고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것을 말살당하고 빼앗기면서 지낸 부끄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는 농경문화가 그 원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쌀에 얽힌 희노애락을 으뜸 줄기로 하여 우리의 문화를 이룬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남 하동 평사리 만석꾼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논에 대한 애환을 그린 박경리 선생의 대작 「토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라운드의 최대 이슈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함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는데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논에 심겨진 벼는 탄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연간 1,630만톤의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고, 대신 신선한 산소(O₂)를 연간 1,230만톤이나 공급하여 연간 약 5,800만명이 마실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논과 벼농사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논은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땅인것만은 아닙니다. 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업의 발전과 생활의 편익을 널리 그리고 깊게 이해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리핀에 3,000ha에 달하는 아시아 식량기지를 건설 하지는 제안은 식량안보와 함께 논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게 되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기후와 환경이 닥쳐와도 논과 벼농사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소중한 농사로 남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논은 영원히 논으로 지켜져야만 우리의 생명과 문화의 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Y

